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6. 봄(Spring)

과 녀

강은 당신의 화살
어디에서 쏘든지 반드시 바다를 맞히는
강은 당신의 화살

바다는 당신이 세운 과녀
빛나가는 화살이 없네.

시간은 당신의 화살
오래 전에 쏘았어도 먼 훗날에 쏘더라도
반드시 영원을 맞히는 시간은 당신의 화살

영원은 당신의 과녀
빛나가는 화살이 없네.

사랑은 당신의 화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나 빛나가는 화살 없고
외로운 화살 없어
과녀를 찾아보니 당신한테 꽃혀 있네.



-이 명진(예로니모) FMM 영적가족

※ 화살이 과녀를 비껴나가면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강은 바다가 되고 시간은 영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사랑하시는 하느님.
우리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형제자매님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 도움의 손길은 FMM 카리스마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려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며, 조건 없는 사랑의 아름다운 예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활력 넘치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매일의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차시기를 좋으신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새해 하느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선종 800주년을 맞이하여 2026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를 ‘성 프란치스코의 해 특별히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기동안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아씨시의 성인의 모범을 따라, 거룩한 삶의 본보기가 되고 평화의 끊임없는 증인이 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이 희년의 목적이 더욱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황청 내사원은 교황 성하의 뜻에 따라, ‘성 프란치스코의 해’의 전대사를 통상적인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을 따른 기도 바치기)으로 부여합니다. 이 전대사는 또한 연옥 영혼들을 위한 전구의 형태로 적용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구성원들

- 프란치스칸 1회, 2회 및 수도 3회와 재속 3회 회원들.
-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을 따르거나 그의 영성에서 영감을 받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그의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봉헌 생활단과 사도적 생활단 및 공적, 사적 신자 단체의 구성원들.

2) 모든 신자들

- 죄를 멀리하는 마음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해’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전 세계 프란치스칸 수도회의 성당이나 경당, 성 프란치스코에게 봉헌된 성당, 또한 어떤 이유로든 프란치스코 성인과 연결된 모든 예배 장소를 순례의 의미로 방문하여, 희년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하거나, 혹은 적절한 시간 동안 신심 깊은 묵상을 하며,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자비의 마음이 퍼져나가고 민족들 사이의 평화와 화해를 바라는 열망이 피어

나기를 기도하는 이들.

이 기도는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프란치스코, 성녀 클라라 및 모든 프란치스칸 성인들에게 드리는 전구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노인들, 병자들, 그들을 돌보는 이들,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모든 이들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떠한 죄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통상적인 세 가지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을 따른 기도)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뜻을 지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자신의 기도와 삶의 고통 및 시련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하여 '성 프란치스코의 해' 희년 예식에 영적으로 참여하며 전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마태오 12, 50)

이 글을 나누면서 다시금 제 선교 여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바쁘게 앞으로만 향해 달려온 시간들, 이제 잠시 멈추고 거의 15년이 되어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삶을 돌아보니 절로 감사의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저는 한동안 줄루(Zulu)민족이 사는 움진토(Umzinto)에서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은 하느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따라, 인종 차별 정책과 빈부 격차,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위한 내적 치유 여정(Journey into Healing)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물 중독으로 재활이 필요한 형제들과 이 치유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내적 치유 과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인간적인 성장과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각자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김명숙 설비아 수녀



하느님께서 예수님 마음으로 이곳 형제 자매들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내적 아픔에 치유와 희망이 되도록 보잘것 없는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진심어린 사랑을 통해 저희가 선교사로 살 수 있기에, 이 선교적 소명에 깊은 연대감을 느낍니다.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그리고 축복이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한분 한분께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김 실비아 수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fmm 후원자 여러분.

저는 정연수 잔다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 리옹 근교 올랭이 라는 작은 도시에서 6명의 자매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로 오게 된 지는 7개월 정도 되었구요, 현재 리옹 가톨릭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fmm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다문화 공동체입니다. 프랑스, 폴란드, 불가리아, 인도, 모잠비크 그리고 한국 이렇게 여섯 국적, 그리고 84세부터 24세까지 다양한 세대의 자매들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2021년 프랑스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자유롭다 못해 제 눈에는 무질서해 보이기까지하는 모습이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인격으로 존중받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정연수 잔다크 수녀

작년 9월부터 신학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교육 시스템에 등교 첫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학장이 학교를 소개하면서 이 교육의 목표는 좋은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점진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더니,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1대 1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학생들과 연결을 시켜주고 또 수업 필기 역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전인교육을 이렇게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목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론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사목현장과 나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험과 적용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는 참으로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학교 공부와 공동체 생활, 기도 생활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설날의 명절 분위기는 느낄 수 없지만, 한국에 계신 수녀님들과 가족들에 대한 마음은 더욱 애뜻해지곤 합니다. 늦은 인사지만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느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수 잔다크 드림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글라라의 집

요양원의 성탄 밤 미사는 저녁 6시 40분에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전홍준 미카엘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셨습니다. 워커로 걸으시거나 휠체어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구유 경배 때에는 수녀님들이 각자 휠체어 어르신들을 밀고 제대에 나아가 함께 아기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그 모습은 하느님 보시기에도 흡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글라라의 집이 광명시에 있을 때부터 초창기 멤버로 거의 30여 년을 함께해 오신 이*자 어르신께서 최근에 뇌경색이 와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올해 103세 되셨는데 식사도 잘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종무식에는 드레스 코드를 초록으로 맞추었는데 직원들의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초록 헤어밴드를 비롯해 초록색 롱 드레스, 초록색 가발, 초록색 가면까지 다양한 장식의 초록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의 광장이 되었고, 서로 마니포 선물을 교환하며 풍성한 종무식을 하고 2025년 한해를 마감했습니다.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 2025년 12월 19일 다섯 팀(민족화해, 청년사목 및 성소계발, 영적가족, JPIC, 홍보) 자매들이 모여, 한 해 동안의 활동과 평가, 제안들을 활발하게 나누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우리 영성의 다양함 안에서 풍요로움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026년에도 주님과 함께 우리 열심히 살아봅시다.



♣ FMM 영적가족

2026년 1월 17일-18일, 대전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우리들의 이야기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로 FMM 영적가족 16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63분의 영적가족분들이 참석하셨으며, 진지하고 감동적인 나눔으로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분의 약속식이 있어서 더욱 뜻깊고 몽클했습니다.



♣ 인사이동

매년 1월에는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올해도 수녀님들의 짐싸기와 짐부치기로 수녀원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버려진 박스 찾아 삼만리(짐을 싸야 하기에), 그에 따라 택배 아저씨도 무척 바쁘셨죠^^. 익숙하고 정든 공동체 그리고 사도직을 뒤로 하고, 하느님의 또 다른 부르심에 선교사로서 희망 안고 떠나시는 수녀님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 창립어머니 말씀 :

“하느님의 시선 아래에서, 그 외의 것에서는 온전히 비우며 사는 것”은 내게 있어 영원한 빛입니다. 이 신비에서 보이는 마리아의 단순함은 빛을 발합니다. 마리아는 항상 겸손하신, 참된 분이십니다. 나를 참으로 순수하고 참으로 작게 만들어 달라고 마리아께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받게 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실 분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아래 은행으로 입금자명(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분)으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우리은행 072-475366-13-401 농협 100072-51-060834

국민 362737-04-000395 하나 355-910035-52905

신한 140-007-059957 우체국 013078-01-001984

기업 420-017389-01-018 제일 453-20-002924

담당자: 010-2821-8174 수녀원 : 02-852-0939

E-Mail : fmmecokor@daum.net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2025년 후원금 결산서 (1월~12월)

수 입		지 출	
전년이월	186,783,527	법인사무비	80,831,695
후원금수입	435,738,603	법인사업비(애공비)	28,013,335
		해외선교지원	24,340,072
		새터민	22,709,600
		이주민	89,246,000
		공부방	60,810,600
		기타사회복지	60,780,190
		양성비	145,217,485
		후원자관리	5,995,120
		이월금	104,578,033
합계	622,522,130	합계	622,522,130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가나스틸	김셋별	김추양	박원서	송비이명순	유채영	이은주	정경필	최상순
가정성당	김서애	김춘자	박윤신	송순이	유춘성	이임수송재용	정동락	최속규
가좌성당	김선옥	김학명	박은영	송승윤김서현	유혜정	이재영	정미경	최순애
강경아	김성미신소희	김혜자	박은정	송증애	유홍순	이재욱	정미영	최애란
강대현	김성애	김현숙최지명	박은희	송채영	유희숙	이정란최윤	정미희	최영남
김미현	김성옥	김현희	박재용	송혜경	유희경	이정민	정성민	최영운
김숙자	김성용	김혜정	박정순임현서	순교성인성당	육동배	이정숙	정소영	최원단
강순애	김성원	김호성박정식	박정연	신동규	윤계남	이정원	정신자	최원철
강신연	김수경	김호식	박주형	신문경	윤규현	이정준	정영숙	최은실
강연호	김수영	김호진	박준우	신승일	윤명자	이정하	정은희	최인석
강원석	김숙경	김희재	박진	신아영	윤명희	이정희	정인숙	최일순
강창주	김순철	나숙희	박찬순	신용숙	윤문섭문선미	이종욱	정인순	최재석
겸암성당	김애자	나정순	박찬주	신유라	윤미숙	이종윤	정재훈정지호	최정선윤각의
고려문화	김에리사	남기경	박찬희강동연	신유주신상빈	윤보미	이주남	정진명	최지은
고성철	김영순	남보라홍은숙	박태분	신재진	윤봉수	이주호	정진숙	최효순
고승현	김영옥	남옥자문주영	박태분최민정	신정성당	윤순희	이지아	정찬영	추영숙김주년
고송희	김영윤순희	노미경	박혜필	신정식	윤임순	이지연	정혜경	추종현
고은하	김영자	노병덕노진규	박현애	신주선신유경	윤정미	이지민	정희	태개남
고재영	김영재허갑수	노봉근	박현희	신주화	윤정희	이진욱	조건희최취선	퓨터로지스
고지영	김영주	노석심	박희수	안미령	윤한희	이채화	조경득	하옥경
고혜란	김영준김정애	노인숙	박효정	안성민이재익	윤현숙	이태금	조광태	한규영
광창용	김영춘	노정애	박희순	안양금	이기을	이필단	조규진조남섭	한기훈
광해용	김영한	당효준이순희	방웅	안현준	이갑수	이항남	조금자	한상국
구흥회	김옥림	루케치오형제회	방진	양기홍	이경재	이해령	조봉혜이상호	한순옥
구유회	김옥주	류정이	배수정	양미경	이계호	이해일	조상위	한순희
권고은	김용수	마선안	배영주	양윤석	이광희	이현재	조석금	한영미
권도수	김용식	마전성당	배운숙	양윤재	이남순	이현준이창석	조성자	한옥선
권순영	김용자윤소라	명영희	배장열	양종한	이동준	이홍식	조순옥	한은주
권순익	김용주	모들초경	배철희	양천애덕희	이동현	인동FN	조영주	한정희
권영오	김용준	문경애	백미자	여은지	이명희	인용석	조용자	한진경
권정신	김원란	문미형	백성대	연수성당	이미란	인천교구	조옥희	한효정권오현
금부동	김원숙	문상원	백푸드	연희동성당	이민희	인천뜨란	조원규	함광훈
금창호	김윤기	문성식	버닝하트	영적가족	이병철	인해정	조인주	허재숙장효선
기종현	김인희	문성재	변복자	영준금숙	이복순	임승옥	조재호	허정자
김경순	김진디	문준식	변태식	오말희	이상문	임정태	조정희	한경미
김경재	김재식	민들레지역	부산아름	오복연	이상숙	임지원	조진면	홍말숙
김경희	김재욱	민정웅	사랑나무치과	오소영	이상욱	임진수	조진상인지영	홍명숙
김광기	김정매박치현	박균열	사별가족	오숙자	이상호	임혜숙	조현주	홍미경
김귀선미리암	김정민	박금난	서덕순서득순	오승훈	이선영	임호	조혜영	홍민선
김귀선스테파니아	김정선	박기선	서명자	오아영	이성구	장민정	조화숙	홍민희
김기정	김정숙	박래춘	서춘자	오영희	이성남	장세욱	조희공	홍성란
김나린	김정애	박문주	서태진	오옥형최민귀	이성엽	장영문	조희무	홍세아
김남기김민정	김정웅	박병욱송덕규	서향란	우상혁	이슬기	장원태	주성미	홍승희
김덕철	김정임	박병주	서혜경	우영희	이승옥	장인용	진성자	홍영용
김도상	김정택	박삼미	서혜석	우혜령	이승은	장현아	진숙인	홍익기
김도영	김정화	박성정	석남성당	윤남빈첸시오	이승희	장형숙추현준	채상훈	홍정임
김동일	김종연	박성준	석남제속회	원당동성당	이인나	전명희	천명덕	홍종길
김동현	김준희	박성현	석상령	원세경	이연실	전상은	천정원	홍경희
김득수	김지선	박소연	성아가다	유경진	이영복	전순임	청리3동	황미순
김득현	김지영	박소정	성영신	유미경	이영애	전순자	청라빈첸시오	황세민
김미리	김지은	박소진	성영주	유병춘	이영혜	전순희	최규범	황영근
김민규	김지혜	박수민	소재록	유성재	이목자	전은희	최금영	황윤서
김별	김진금	박수인	순순덕	유수민	이원순	전주란	최명숙	황의택
김봉연	김진숙	박순옥	손은영	유영재	이윤신	전송엽	최미선	황인복
김봉현	김진식	박순자	손은주	유은분	이윤옥	전혜향	최미양	황혜숙
김상률	김채송	박승민	손정례	유은정	이은미	정강호	최민자	
김상태	김철형	박연애	송경수	유주영이성혜	이은정	정경원	최선애	